Hello, I am Sister Susan Marie Yochum.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forty years ago on January 4, 1978 following my graduation from Seton Hill College in 1977. I made final vows on August 13, 1983.

I began full-time ministry in education at Mon Valley Catholic High School as a chemistry teacher. I joined the faculty at Seton Hill in 1985. Over the past thirty-three years, I have served as a member of the chemistry faculty and in various administrative roles including my current position of Provost.

I continue to enjoy teaching first year students in laboratory courses. Elizabeth Ann Seton and my former Sister of Charity teachers continue to serve as my inspiration to welcome all students and serve them with patience, encouragement, challenge and respect and to create a learning environment where each student's potential flourishes. Seton Hill is celebrating its Centennial this year. It has been an honor and blessing to be a part of its history and growth. (Photo: "Hard Hat" in front of the construction site of the JoAnne Woodyard Boyle Health Sciences Center.)

I enjoy hiking and the study of Native American culture.

안녕하세요! 수잔 마리 요컴 수녀(Sister Susan Marie Yochum)입니다. 저는 1977년 씨튼 힐 대학을 졸업하고 1978년 1월 4일에 입회했습니다. 벌써 40년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1983년 8월 13일 종신서원을 했습니다.

몬 밸리 가톨릭 고등학교(Mon Valley Catholic High School)에서 화학 교사로서 교육 사도직을 시작했지요. 35년 동안 화학 교사로 일했고 현재 맡고 있는 대학 학장직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정직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험실에서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엘리사벳 앤 씨튼과 아이들을 가르치셨던 우리 수녀님들을 통해 계속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맞아들이고, 인내심을 가지고 격려하며 도전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각 학생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해주지요. 씨튼 힐 대학은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교의 역사와 성장의 한 부분을 그릴 수 있다니 저에는 큰 영광이며 축복입니다. 사진은 조앤 우드야드 보일 건강 과학 센터(the JoAnne Woodyard Boyle Health Sciences Center) 건축 현장에서 '안전모'를 쓴 제 모습이에요.

하이킹과 미국 원주민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좋아한답니다!